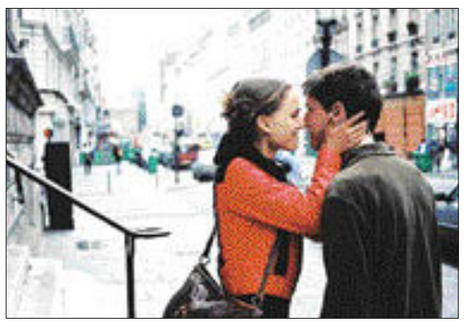


사랑 '종합선물세트'

주목! 이 영화 **사랑해, 파리**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세느강…

전세계인들에게 파리는 한없는 동경의 대상이다. 그곳에서는 왠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해, 파리'는 '파고'의 코엔 형제, '굿 윌 헌팅'의 구스 반 산트, 왕가위 감독 영화를 촬영하며 이름을 알린 크리스토퍼 도일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0명의 감독이 파리를 배경으로 사랑에 관해 찍은 짧은 단편을 모은 옴니버스 영화다.

감독들의 명성만 화려한 게 아니다. 줄리엣 비노쉬, 나탈리 포트만, 제라르 드 파르듀, 스티브 부세미 등 한 영화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유명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우연히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 이슬람 소녀와 프랑스 소년의 풋풋한 사랑, 에펠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임이스트의 운명 같은 사랑 등 '종합선물세트'에서 마음에 맞는 에피소드를 골라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영화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태우

김보경

김태우·김보경 '기담' 주인공 캐스팅

영화계는 지금

영화배우 김태우·김보경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 '기담'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941년 경성의 안생병원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담'에서 두 사람은 도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사 부부역으로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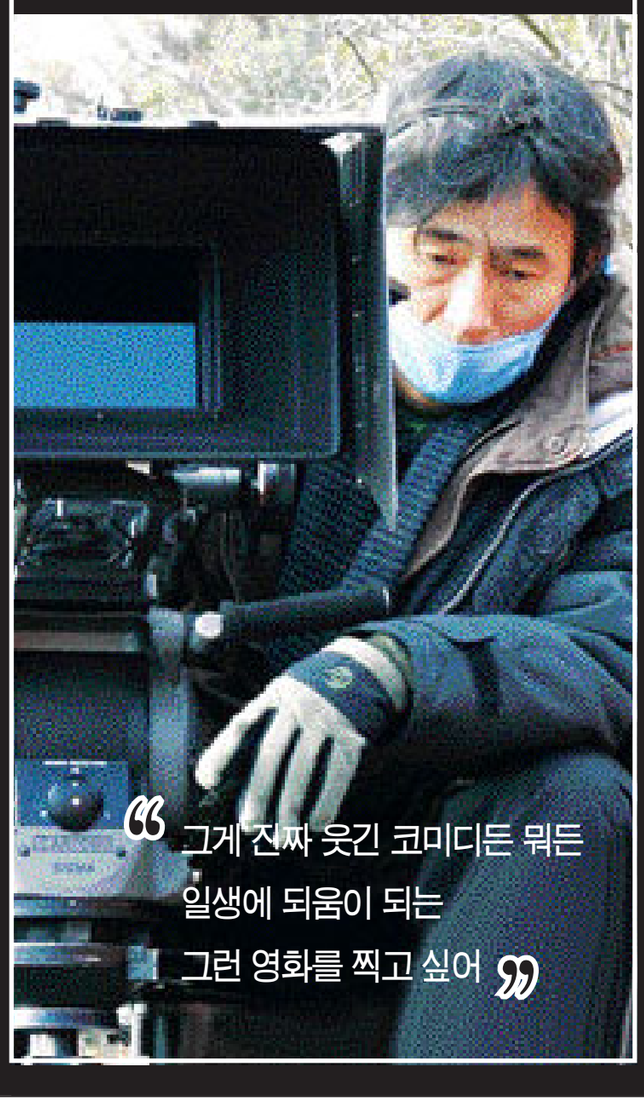
'기담'에는 또 '비열한 거리'와 '와일드 카드'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준 진구와 이동규가 의대 실습생과 책임감 강한 전문의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우형 감독(39)은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 이슈 메이커인 장선우·임상수 감독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거짓말' '바람난 가족' '그 때 그 사람들' '오래된 정원'까지.

전도연과 김혜수라는 당대의 여배우와 작업한 '해피엔드'와 '얼굴 없는 미녀'를 거쳐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놈 목소리'를 촬영한 김 감독을 만났다.

잘~찍고 싶은 카메라의 욕망



김우형 화제작 '그놈 목소리' 촬영감독

광주일고 출신으로 런던국립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한 김 감독은 드센 영화판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처럼 보였다. 조금은 왜소해 보이는 모습에 "말을 잘 못해 기자들이 싫어한다"며 미소짓는 김 감독은 "광주 출신이라는 건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광주 출신이라는 건 언제나 나에게 힘

"최근작인 '그놈 목소리'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다 영화에서 유괴범은 목소리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에 부담이 많았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부모 입장에서 찍은 영화다. 끝없는 적개심을 품게 하는 영화라고나 할까. 배우들을 보며 많이 놀랐다. 설경구같은 배우는 하루 2~3시간만 자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데 앵글에 잡힌 얼굴을 보면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카메라가 배우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배우의 힘이 모든 걸 만들어 나간다."

김 감독이 앞서 작업한 '오랜된 정원'은 80년 광주가 중요 모티프로 작용한다. 그에게 '광주'는 항상 소중한 곳이다.

"난 운동에 대해 친근하고 옳은 일이라 느끼며 자랐다. 영화 '오래된 정원'에서는 망월동이 한씬 등장한다. 딱 한장면이지만 이곳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망월묘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앵글 등을 많이 고민하며 결정했다. 광주 자체가 하나의 배우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 감독은 학교의 고향 친구들이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들 때 카메라를 들었다. 감옥에 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는 군대로 도피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한 뒤 영국으로 떠났고 시위 장면을 편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영화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에서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일로 충무로에 발을 내딛은 김감독은 '거짓말'을 통해 정식감독으로 데뷔했다.

"난 영화는 전적으로 감독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독이 내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감독들과 다시 영화를 하면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아 좋다. 새로운 영화를 시작할 때는 '진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 작품 속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촬영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좋은 촬영

'ET'를 참 좋아한다는 김 감독은 최근 본 영화 중에는 잘 찍고 잘 만든 '살인의 추억'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

"대학교 때 선배에게 시위하고 학습하다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했더니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라는 답을 하더라.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알아서 찍는 게 영화지만 이상한 영화 찍으면서 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게 진짜 웃긴 코미디든 뭐든 일생에 되움이 되는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

현재 개봉중인 '그놈 목소리'와 함께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던 '그 때 그사람들'의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장면과 거사가 일어난 궁정동 안가를 찍은 장면 등을 통해 김 감독의 '촬영'을 살펴보는 것도 영화 보는 재미중 하나가 될 듯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놈 목소리'는?

유괴 사건 소재 실화… 박진표 감독이 메가폰 잡아

1991년 발생한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납치 당한 후 44일만에 시체로 발견된 형호군 사건은 공소 시효가 만료된 15년 동안 경찰병력 3만명이 투입돼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이 영화는 당시 이 문제를 다뤘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연출이었던 박진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화제가 됐다.

설경구와 김남주가 아이를 잃고 피폐해져 가는 부모를 연기했으며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목소리'는 강동원이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그놈 목소리 실화인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설경구, 김남주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아포칼립토 마야문명의 흥망사를 보여주는 영화로 영화배우 출신 감독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았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스쿠프 우디앨런이 감독하고 스칼렛 요한슨, 휴잭맨이 주연을 맡은 영화.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클릭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능 리모콘을 손에 넣은 한 남성의 좌충우돌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사랑해, 파리 20명의 감독이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황후花 당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궁중의 암투와 사랑이야기. 장예모 감독, 공리, 주윤발 주연.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최강 로맨스 여기자와 형사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로 현영과 이동욱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미스포터 '피터 래빗'으로 유명한 베아트릭스 포터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전체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CGV(상무·첨단),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천년여우 여우비 구미호를 소재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마파도 2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던 '마파도'의 속편. 여운계·김을동·이문식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로보트 태권 V 30년만에 다시 찾아온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로 완벽 복원됐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하미, 스타박스
허브 몸은 스무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일곱살인 상은의 성장기. 배종옥·강혜정이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미녀는 괴로워 전신 성형수술로 S라인의 미녀로 탄생한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